

이름: 강지희

이메일:

나이: 30 살

학년

거주지역:

인천 계양구

본 행사 참여경험(우측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2013 2014 2015 처음참여

제목: 태현이 사고나다.

수영장에 가기 싫어하는 태현이를 등 떠밀어 보낸지 20분.
 한통의 날선 전화가 왔다. 태현이가 자동차에 부딪쳐 사고가
 나서 빨리 와 달라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다급하게 차량에 타고 간 장소에는
 경찰관과 동네 주민들에 둘러 쌓여 있는 태현이와 친구 성호가
 있었다. 나는 보자마자 태현이가 닭똥같은 눈물을 흘렸다.
 입 주위에는 피 범벅에 치아 빠진 이는 들고 있었다.
 다른 다친 곳을 찾으며 괜찮다면 다독이며 사고 경위를
 들었다. 두 친구가 한 차로를 나란히 가다가 오후에 오는
 자동차를 못보는 태현이가 자동차 밤더에 부딪쳤다고 했다.
 운전자는 신호가 있던데 괜히 백승의 아이도 걱정이
 되었다. 다 늘던 나머지 크게 다친 곳이 없으니 가서도
 된다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하고
 연락처를 받고 우리는 차로 가서 진료를 받았다.
 차전기 탈 때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더 알려주고
 조심하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잠을 청했다.
 마음 철렁한 하루가 지나며 이만 하길 다행이라 생각하고
 생각했다.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 기억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컨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컨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 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omeka.hmarchives.org/>